

## 일본의 의료산업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

-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의료기술과 병원 등의 시설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해 경산성이나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음
- 특히 일본이 강한 의료기기나 의료교육 및 서비스 등, 단순히 해외로 전개하는 것뿐만이 아닌 일본의 고령화 대처 경험 등을 현지국에 이전해 서로 윈윈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

### □ 일본의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현황

- 세계의 의료시장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음
  - 60세 이상인구는 현재 8.9억 명에서 2050년에는 2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향후 개발도상국에서의 의료니즈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    - \*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세계의료시장은 7.4%성장을 기록
  -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프라와 의료인재 등의 부족으로 평균수명이 짧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
- 일본의 의료업체들은 이러한 해외 의료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컨설팅, 기술지도, 연수 등의 소프트면에서의 해외진출과 병원 등, 실제로 시설을 만드는 해외진출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
  - 소프트면에서의 해외진출 형태로는 현지 의료기관에서 현지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기술자에게 일본식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기술지도,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원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실시하고 있음
    - \* 일본의 소프트면 의료수출 사례 : 나고야 대학과 의료기기제조사 그리고 제약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일본에서 의사를 파견하고, 베트남의 병원에서도 현지의사에게 일본식 내시경진료 교육을 실시
  - 해외직접투자(FDI)의 해외진출로서는 클리닉, 진단센터·건강검진센터, 특정분야의 치료센터 그리고 병원의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음

\* 일본의 의료FDI 사례 : 캄보디아(프놈펜)에서의 KNI그룹(키타하라국제병원)에 의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클리닉의 설립이나, 인도네시아(자카르타)에서 偕行會그룹에 의한 투석 치료병원의 설립 등이 있음

-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없을 경우,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\* 2015년 일본병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, 해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사(전체 1.6%)였고 “해외진출을 하지 않고 있다”고 대답한 기관은 641사(전체 95.8%)였음

## □ 일본의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정책

○ 일본정부는 2014년에 각의 결정된 「일본재흥전략」을 근거로, 경제산업성, 외무성, 후생 노동성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2010년도 추경예산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진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F/S조사·실증검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
- 특히 일반사단법인 메디컬·엑셀런스·재팬(MEJ)를 활용하여 관민이 일체가 되어 일본의 의료기술·서비스의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

\* 「건강장수국가 일본」이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건강·예방서비스의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JETRO나 메디컬·엑셀런스·재팬(MEJ)와 협력해, 해외에서의 일본의료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

\* 일본정부는 MEJ의 활용을 통해, 2020년까지 일본의 해외의료거점을 10개정도 설립하고 2030년까지 5조엔 규모의 시장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

### 《MEJ의 주요사업》

1	일본의 의료기기 서비스 노하우 및 이들을 일체화시킨 시스템을 수출
2	외국인 환자를 국내에서 검사·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바운드 유도
3	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재육성, 국내·외에 대한 정보전달·홍보·관련 사업자·단체·정부관계자 등과의 연계활동 전개

○ 상기 의료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총리관저 내에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「건강·의료전략추진본부」를 2013년 2월22일 설립했음

-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의 사령탑이며, 총리를 톱으로 하는 추진조직 「건강·의료전략 추진본부」와 정책을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설치할 방침을 각의 결정했음


- 이 조직의 주요업무로는 ①건강의료전략수립, ②예산 배분의 조정 등을 실시하고, 한편 실제 계획수립은 「건강·의료전략추진전문 조사회」가 실시하고 있음
- 외무성과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①기술협력을 통한 인재육성, ②일본의 의료장비의 홍보와 제도교육, ③무상자금협력·엔차관에 의한 일본제의 의료기자재 공여, ④민관협력에 의한 지원 등을 통해, 개발도상국의 의료보험분야 개발에 공헌하는 등 우수한 일본식의료·일본의료장비를 어필
-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분야의 제품(CT, X선촬영 장치 등)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신흥국의 거점병원에 ODA를 통해 제공하고, 전략적으로 지원
  - \* 2012년에는 33억엔, 2013년에는 20억엔, 2014년에는 7억엔, 2015년엔 12억엔이 무상자금 원조에 사용되었음
- 후생노동성은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, 개발도상국 등의 해외국가와 보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
  - \* 첫째 일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, 상대국가의 의료보험 분야의 정책형성 협력을 실시하고, 둘째 의료기술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등,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각국의 요구에 맞춘 협력을 추진
  - \*\* 2015년 9월말 기준 세계14개국과 MOU체결

## □ 일본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과제

- 노무라종합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과제는 3가지 즉 ①해외 현지에서의 일본식 의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, ②일본의 의료기술의 인지도를 향상, ③실효성이 높은 실시체계 구축 등이 있다고 지적
- 해외시장에서의 일본식 의료에 대한 수요는 우선 현지의 의료수요(고령화율, 질환별 환자 수, 사망원인 등)와 의료공급(의료기관수, 의료종사자수,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수 등)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
- 또 해외현지의 의료비 지불제도나 공적·사적보험의 지원비율, 관련법규정 등 제도면에서의 정보의 이해도 중요함
  - \* 아시아나 중동지역에서의 의료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현지의 의료관련 통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,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
- 일본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향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본기술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한 결과 자사의 의료기기나 기술의 인지도 향상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음

-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일본 의료사업체는 아세안이나 중동지역에서의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며, 낮은 인지도가 현지에서의 의료니즈 획득의 장벽이 되고 있음
  - \* 일본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해외시장에서 관민 미션단을 해외에 파견해, 일본 의료기술의 경쟁력과 서비스등을 알리는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
-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병원 등으로 컨소시엄 형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업체들 간의 목적과 이익 등의 갈등을 조정할 중심적인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
- 실시체계 측면에서 모든 참여업체가 일본기업들이라면 현지에서의 반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나 유력한 정치인이나 정부관계자와의 관계 그리고 현지의사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도 중요
  - \* 일본경제산업성은 2011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에서 해외현지 유력한 파트너 후보와의 관계 구축과 인맥구축을 지원하고 있음

## □ 시사점

- 아베 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은 침체되고 있는 일본의 의료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향후 의료계, 산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일본 의료를 수출 및 직접 전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
-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러한 의료 비즈니스 해외진출 지원이나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하여, 우리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-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에 비해 사실 의료비즈니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본격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
- 특히 일본은 의료기기이나 검진기술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으며, 반면에 한국의 경우 현지시장에서의 정보수집능력과 경험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 등, 일본이 취약한 부분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
- 한일 양국이 인프라뿐만이 아닌 의료분야에서도 서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려해, 협력하고 한일협력으로 의료의 해외진출을 추진 시켜도 향후 세계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.

## <참고자료>

국제의료의전개의 현상과 전망(2016.5.23), NRI KNOWLEDGE INSIGHT(2014.9), 미즈호정보증권 리포트(2014.10)